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식품, 안전, 부패, 위생, 검사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 주요 키워드 :

호주, 식품, 안전, 부패, 위생, 검사 등



##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6. 4  
식품 안전을 위한 준비, 보관,  
재가열 및 위생 요인

2017. 4. 6  
공급 사슬과  
식품안전 문화

2017. 4. 25  
호주, 미국과 상호식품  
안전 협정 체결



핵심이슈  
도출

**“호주,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 식물성 제품 검사 방법 수정안 시행”**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 호주,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 식물성 제품 검사 방법 수정안 시행

호주 농업수자원부가 발표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 식물성 제품(imported perishable plant products)에 대한 검사 방법 수정안이 2017년 4월 1일 발효됐다.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 식물성 제품으로 과일, 야채, 묘목, 자른 꽃이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수입업체, 화물 운송업자, 브로커 등 이해관계자는 제품 검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AA Class 2.41(항공화물 부패성 물품에 대한 포장 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생물 보안 산업체는 농업수자원부서를 대신하여 부패 가능성이 높은 식물성 항공 화물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검사가 필요한 당사자는 ‘방향 요청(Direction Request)’ 단계에서 농업수자원부서 혹은 AA Class 2.41 소지 생물 보안 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 개정안에 따르면, 밀폐된 차량에서 안전하지 않은 화물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송물은 운송되기 전에 압축 등의 방법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식품 공급 사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식품 안전 검사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농업수자원부가 AA Class 2.41을 소지한 생물 보안 사업체를 추가 검사 주체로 지정함에 따라,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 식물성 제품에 대한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식품 안보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호주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식물성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의 운송, 보관 등 제반 과정에서 관리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은 각 단계에서 적절 온도 유지 여부 및 위생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현재 식품 안보는 단순히 유해 식품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 운송, 보관 및 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 되었다. 개별 기업은 높아지는 식품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제품 자체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법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식품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